

‘포개다, 달포, 해포’의 어원

김무림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포개다, 달포, 해포’ 등의 어휘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음운적으로는 ‘포개다’의 ‘포’와 ‘달포, 해포’의 ‘포’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포’는 의미적으로 같은 것일까요? 오늘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포개다, 달포, 해포’ 등의 어원을 살펴보면서, 이들 사이에 개재한 어원적 공통성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에 정의된 ‘포개다, 달포, 해포’의 뜻을 소개합니다.

■ ‘포개다, 달포, 해포’의 정의

- 포개다: 「동사」 ① 놓인 것 위에 또 놓다. ② (…을) 여러 겹으로 접다.
- 달포: 「명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해포: 「명사」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포개다’는 ‘접시를 포개어 놓다. 이불을 포개어 쌓다.’ 등과 같이 위의 정의 중에서 주로 ①번의 뜻인 ‘놓인 것 위에 또 놓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달포’와 ‘해포’는 ‘달포가 지나서야 돌아왔다. 해포 만에 뵈습

니다.’ 등과 같이 사용되지만, ‘해포’는 근래에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포개다, 달포, 해포’ 등에 나타나는 ‘포’는 어원이 같습니다. ‘포’는 중세 국어 ‘푼다’의 파생 형태에서 온 말이며, 근대 국어 시기에도 ‘푼다’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푼다’가 현대 국어 시기까지 이어졌다면 그 형태가 ‘파다’가 되었을 것이지만, 아쉽게도 ‘푼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사어(死語)가 되어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포개다, 달포, 해포’ 등의 용례를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의 옛 문헌에서 찾으면, 그 역사적 소급 형태는 다음과 같이 ‘포가히다, 들포, 히포’ 등입니다.

- 옛 문헌에 나타나는 ‘포가히다, 들포, 히포’
 - 두 衤이 서르 포가힌 圖(兩衤相疊之圖, 《가례언해》 도 9)
 - 나도 못 뵈안 디 들포 되오니(《숙종언간》 9)
 - 히포 미류흐신 증세예 침식을 못흐오시고(《계축일기》 11)

‘포가히다, 들포, 히포’ 등에 나타나는 ‘포’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푼-+오’입니다. 옛 문헌에 쓰인 ‘푼다’의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옛 문헌에 쓰인 ‘푼다’
 - 쇼홀 포 질오 안즈며(《삼강행실도》 효자 2)
 - 히 디나며 들 파(經年累月,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중 7)
 - 그리 나간 디 날이 푼니(《인선왕후 언간》)

중세 국어에 사용된 ‘꼭다’는 ‘거듭되다/거듭하다[重疊]’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포 짚오’는 ‘겹쳐 깔고’의 뜻이며, 이 경우의 ‘포’는 ‘꼭-+오(부사화 접사)’의 구조로 분석됩니다. ‘달 파’는 ‘달[月]이 거듭되어, 달을 거듭하여’의 뜻이며, 이때의 ‘파’는 ‘꼭-+아(어미)’로 분석됩니다. ‘날이 꼭니’는 ‘날[日]이 거듭되니, 날을 거듭하니’의 뜻이며, ‘꼭니’는 ‘꼭-+니(어미)’로 분석되어, 어간 모음이 탈락하지 않은 온전한 어간 ‘꼭-’를 보여 줍니다. ‘꼭다’는 근대 국어 후기에 사어(死語)가 되어 이제는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포개다, 달포, 해포’ 등의 어휘에 그 형태가 화석화되어 남아 있습니다. ‘포개다, 달포, 해포’를 중세 국어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으며, 원래의 어원적인 의미도 함께 보이겠습니다. 현대 국어 ‘달[月]’과 ‘해[年]’의 중세 국어 형태는 각각 ‘달’과 ‘히’입니다.

- ‘포개다, 달포, 해포’의 어원적 분석과 의미
 - ‘꼭-+오+가하다: 거듭하여 개다
 - ‘달+꼭-+오: 달이 거듭되어, 달을 거듭하여
 - ‘히+꼭-+오: 해가 거듭되어, 해를 거듭하여

현대 국어 ‘포개다’는 ‘포가하다>포가이다>포개다’의 변화를 겪었으므로,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고 음절 축약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는 문헌인 《가례언해(家禮諺解)》(1632)에 ‘포가하다’가 나타나지만, 또한 ‘左右 | 서르 포개게 햏야(《가례언해》 6, 2)’와 같은 용례가 나타나므로, 당시에 이미 ‘ㅎ’이 탈락한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포, 해포’는 ‘달포>달포, 히포>해포’의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근대 국어 시기에 진행된 ‘으>아’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해당 어휘에 적용된 것입니다. 근대 국어 시기에 ‘으’는 제1 음절에서 ‘야’로 바뀌고, 제2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 양상이었습니다.

‘달포, 해포’의 ‘으’는 제1 음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현대 국어 ‘포개다’는 옛 문헌에 쓰인 ‘포가히다, 포개다’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달포’와 ‘해포’는 앞에 보인 바와 같이 옛 문헌의 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에서 ‘달포’와 ‘해포’는 한자어로 풀면 ‘누월(累月)’과 ‘누년(累年)’에 해당됩니다. ‘누월(累月)’과 ‘누년(累年)’은 ‘여러 달’과 ‘여러 해’를 뜻합니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달포’와 ‘해포’는 각각 ‘월여(月餘)’와 ‘세여(歲餘)’에 해당됩니다. 즉 ‘달포’는 ‘한 달 남짓’의 의미로, ‘해포’는 ‘한 해 남짓’의 의미로 각각 쓰이고 있습니다.

어원적인 문법으로 풀이하자면, ‘달포’와 ‘해포’는 ‘달[月]이 거듭되어, 달을 거듭하여’와 ‘해[年/歲]가 거듭되어, 해를 거듭하여’ 등이므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副詞)’입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앞에 보인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달포’와 ‘해포’는 모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명사(名詞)’이므로,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에서 ‘부사’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명사’로 바뀐 문법적인 변화도 수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지금까지 현대 국어의 ‘포개다, 달포, 해포’의 세 어휘를 대상으로 어원 설명을 하였습니다. ‘개다, 달, 해’ 등은 현대 국어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말이지만, 여기에 붙어 있는 ‘포’는 그 정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포’는 중세 국어 ‘푼다’의 어간 ‘푼-’에 부사화 접미사 ‘-오’가 붙어서 된 말이며, ‘푼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포개다, 달포, 해포’의 공통 요소인 ‘포’는 살아 있는 형태가 아닌 죽은 형태

로서, 일종의 화석화된 형태입니다.

비록 현대 국어의 어휘 속에 남아 있긴 하지만, 생명을 잃고 화석화된 형태는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살아 있는 다른 형태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견디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능동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달포’와 ‘해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접한 주위 말의 영향을 받아 쉽게 그 용법과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원론은 이러한 화석화된 형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화석을 캐내어 분석하여 원래의 옛 모습을 복원시켜 오늘의 독자에게 소개하는 작업입니다.

‘달포’와 ‘해포’를 원래의 용법과 의미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화석을 잘 분석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 화석을 현대의 생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달이 거둬지고 해가 거둬져어도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r>):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

- 기타 자료 문헌 및 사전은 본문을 참조.